

##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1,

### 요한계시록 14-16장 첫 곡식과 포도

####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21과, 요한계시록 14-16장, 첫 곡식, 포도 심판,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저자가 14장에서 12장과 13장의 짐승과의 싸움에서 인내하고 인내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최종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굴복한 자들의 운명, 또는 짐승을 따르고 동일시하며 그에게 경배와 충성을 바친 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섹션에서 제가 잘못 읽은 두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의 주의를 다시 끌고 싶습니다. 언어로는 144,000명을 첫 열매라고 했는데, 첫 열매 이미지는 한 그룹이나 앞으로 더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것.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선포하라 내가 기억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청년 시절의 헌신, 네가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고 광야에서 나를 따랐지만, 씨 뿌리지 않은 땅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수확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14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이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44,000은 하나의 그룹이나 다음 그룹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주님께 바쳐진 첫 열매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 만한 또 다른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의 17장부터 20장까지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어린 양보다 짐승을 좇은 믿지 않는 인류의 심판을 포도 수확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으며, 포도 수확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본문은 사실 이사야 62장이 아니라, 종말 심판의 맥락에서 나오는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영화로운 옷을 입고 그 힘의 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의롭게 말하며 구원하기에 능한 이니라. 어찌하여 당신의 옷은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처럼 붉습니까? 나는 혼자서 포도주틀을 밟았습니다. 이방 나라 중에서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짓밟았고, 진노하여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그 피로 내 옷을 모두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17년부터 20년까지의 포도 수확에 대한 이 언어의 배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즉, 포도주 틀에 있는 열방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피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본문은 19장에서 기수와 백마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오는 장면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포도주틀의 피로 물들었으니 내가 그것을 취하리라. 따라서 이것은 19장에서 더 자세히 밝혀지는 내용에 대한 일종의 기대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63장과 요엘 3장 및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포도주 틀과 포도 수확 및 짓밟는 일에 대한 이미지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포도주 틀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상이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이사야 63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의 포도주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포도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피가 말 굴레까지 닿거나 올라가는 모습이 매우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군사적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말은 단지 목초지에서 신나게 뛰는 말이 아니라 기병대의 이미지입니다. 전투를 위해 나간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말 굴레 높이까지, 1600 스타디아 거리까지 흐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르면 스타디아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다소 크고 상당한 거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완전한 피의 목욕을 하는 다소 소름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John이 단순히 표준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과 의미를 묘사하는 것이 묵시적인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미래의 심판에서 피가 말 굴레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특히 21세기 이후에 군대가 말을 이용해 전투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지 구약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포도주통을 짓밟으시고 적들의 피가 흐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묵시적인 이미지, 즉 묵시적인 문학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이것이 독자들에게 짐승을 따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과 범위와 경이로움에 대한 인상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텍스트는 1st Enoch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녹 1서에서 중요한 묵시록과 에스라 4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는 그 묵시록 중 두 구절을 더 읽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에녹서 1장 100장인데, 이는 죄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 불경건한 자에 대한 최후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 날에는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한 곳에서 매를 맞고, 형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 쓰러져 그들의 피가 강처럼 흐르게 되리라.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나 자기 손자들에게서 손을 막아 그들을 죽일 수는 없느니라.

3절로 넘어가서 심판과 유혈의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말이 죄인의 피를 흘리며 가슴까지 걸어가고 수레는 그 꼭대기까지 내려가리라. 분명히 말은 전쟁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서 1장에 나오는 피가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의 말의 가슴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또 다른 중요한 묵시록인 에스라 4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은 에스라 4서를 읽든 안 읽든 관계없이 에스라 4장에서 나오는 모티프를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에스라 4장 15장, 다시 말세 심판의 맥락에서. 보라 구름이니라 이것이 에스라 4서 15장 30절이니라 33절부터 36절까지, 34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동서남북에서 구름이 일어나니 그 모양이 심히 위협하고 진노와 폭풍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진노를 쏟아 붓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치며 땅에 큰 광풍과 그들 자신의 광풍을 쏟을 것이며, 칼에서 피가 말의 배와 사람의 넓적다리, 낙타의 등까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약간 다르고 요한이 말 굴레에 올라가는 피를 묘사하더라도 최종 심판에 대한 묵시적인 본문에서 이 개념이 너무 가혹하고 널리 퍼져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혈 사태가 너무나 커서 말의 배나 가슴으로 피가 흐르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요한은 그것을 말의 굴레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에녹서 1서, 에스라 4서 및 기타 묵시록 본문에서 공통된 묵시적 모티프를 끌어낸 것이지, 마치 역사상 이 시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배나 말 굴레를 통해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묵시록 텍스트의 이미지, 스톱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의 감정과 반응을 활용하여 공포와 끔찍함과 정도를 보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미지는 이사야 63장의 포도주 틀을 밟는 언어와 요한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함께 모은 묵시적인 본문의 언어 모두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범위, 성격을 탐구하는 역할을 하며, 심판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14장부터 20장까지는 마지막 심판의 두 장면을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긍정적입니다. 즉, 곡식 추수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추수를 첫

열매로 거두는 긍정적인 장면인데, 아마 14장 4절을 참조하고,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를 포도 수확을 비유로 삼아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악인의 심판이나 악의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므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해당하고, 곡식 추수는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해당하며, 144,000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서 승리하고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짐승은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 그 추수하는 일이 14절부터 16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 특히 천사 2장과 3장은 이제 짐승을 따르는 자들,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형상에 경배하여 충성과 경배를 나타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이 없는 제국인 짐승과 동일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심판 상황은 포도 수확의 형태로 17-2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14장은 단순히 연결되지 않고 무분별한 일련의 이미지라기보다 시온산에서 승리하는 144인, 첫 열매, 바벨론의 멸망, 심판의 언어 등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고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고 연기와 유황이 영원무궁토록 지는 것과 추수하는 광경, 밀이나 곡식의 추수, 포도의 추수라. 요한은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운명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당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고통과 죽음의 지점까지 저항한 사람들, 사탄이 이 땅에서 벌이는 전쟁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타협을 거부하고 대신 인내하며 충실한 증언을 유지한 성도들은 이제 시온산의 144,000명의 모습과 곡식 수확과 첫 열매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타협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부정적인 이미지는 타협하고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기를 거부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 때에 쏟아 붓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상과 바벨론의 멸망과 섞이지 않은 포도주 잔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기와 유황이 영원히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과 그 이미지 중 이제 12장과 13장에서 짐승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묘사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은 심판에 대한 하나의 최종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미안하지만 실제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의 최종 비전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15장과 16장에 있습니다. 15장은 우리에게 더 자세히 풀릴 내용을 소개합니다. 16장에서 그것이 일곱 마지막 재앙이고, 우리는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심판이 될 것인데, 그 가운데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말세 구원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비전과 심판의 비전이 뒤따르는 또 다른 혼합 교대를 찾아보고 그것의 연관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15장, 15장은 15장과 16장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5장은 일곱 대접을 소개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접의 순서, 즉 장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순서입니다. 16.

그러므로 15장은 한편으로 16장에 대한 서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15장과 2장부터 4장까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양에게 주신 승리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15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다른 천사를 보니 크고 놀라운 이적이 있으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성전과 증거의 장막을 바라보니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봅니다.

이제 5절 이하에서는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대접의 형태로 땅에 쏟으려고 나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2절과 4절, 2절에서 4절을 제거하면 이야기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본 일종의 연동의 또 다른 예를 발견합니다.

1절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14장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중단됩니다. 최종 구원의 또 다른 장면이지만 다른 이미지에서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15장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또 다른 이미지인 14장과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16장과의 연결되어 그에 대한 서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일곱 천사와 그 재앙이 소개되는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 옆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끊어지고, 그 노래가 녹음되고, 그런 다음 1절의 장면은 천사들이 성전에서 대접을 부을 준비를 하고 나오는 장면으로 다시 시작되고, 16장은 일곱 대접을 각각 쏟아내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이제 매우 짧은 장인 15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보았고, 내가 다시 본 말씀을 주목하여 환상의 또 다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또 큰 이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일곱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재앙을 가졌으니 이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이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바다 곁에 섰고 이기는 자들은 바다 곁에 섰으니 짐승과 그의 형상은 다시 13장과 14장으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짐승과 그 우상과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144,000명과 같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니 주의 행사가 크고 기이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세의 왕들이여 만왕의 왕이여 여호와여, 이 시대에는 주만 경외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주의 공의가 나타났음이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과 증거의 장막 안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더라.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띠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15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인으로 시작하여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자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인 14장과 13장으로 연결되는 이미지를 하나 더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이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이 단지 2절과 3절을 무분별하게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즉, 15장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시작하지만, 두 재앙과 네 재앙은 성도들이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대신에 저자가 17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연결하거나 서술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것을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자는 대접 심판의 형태로 마지막 일곱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서술하기 전에 마지막 이미지로 바다 앞에 서서 여호와와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자 합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여전히 13장이나 14장으로 연결되지만, 이제 그는 다른 그림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장은 14장에서 본 것과 동일한 장면을 설명합니다.

시온산의 144,000명, 첫 열매의 추수. 이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다른 이미지로 봅니다. 그런데 John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를 연결하는 열쇠는 출애굽기의 언어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싶어합니다.

즉, 그는 16장에서 논의할 출애굽의 재앙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2절과 4절은 연대순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15장 2절과 4절에 성도들이 유리 바다 앞에서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환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후에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반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에 가서 승리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미칠 결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재앙들이 쏟아진 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이 재앙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출애굽기 언어로, 15장과 6장, 15장과 16장의 출애굽기 이야기의 일부로서 저자는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형태로 출애굽기의 재앙 심판을 서술하기 바로 전에, 그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다 곁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2-4장에서 저자가 출애굽기를 분명하게 언급하는 여러 이미지를 그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가 유리 바다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와 같은 바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유대인 문헌에서는 홍해를 유리 바다로 묘사합니다. 구약성서 외에 일부 랍비 문헌에서 홍해를 유리바다로 묘사한 유대교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사야 51장과 9절과 같은 본문에서 홍해가 바다 괴물의 본거지인 혼돈의 바다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바다 괴물의 본거지인 혼돈.

이제 그 바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유리 바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돈과 악의 바다, 혼돈과 악의 홍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혼돈과 악의 바다는 아마도 12장과 13장의 사건을 반영할 것입니다. 여자에게 급류를 쏟아부으려는 사탄의 시도,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는 시도, 그 바다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환난의 시기를 지나 등장하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다 곁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모세가 홍해에서 나온 후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끝에도 모세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특히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요한이 분명히 한 일은 이 노래를 듣고 또한 이 노래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60장과 다른 곳에서 많은 다른 구약성경 본문을 끌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의 전능하신 공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다시 돌아가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와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어린양의 노래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노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 노래가 부르는 것을 듣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하시며 또한 땅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구약의 다른 구절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또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과 그의 거룩한 성품도 입증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노래는 21장에서 더 자세히 전개될 내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장에서 더 완전한 공개로 이어질 결말의 스냅샷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끝나면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이요 주의 의가 나타났으니 21장에서 열방이 새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1장에서 더 자세히 공개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저자가 5절에서 다시 설명하는 전염병

순서의 추가 발전을 위한 장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장이나 나팔 대신에 나팔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심판에 대한 기대를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의 황소는 주로 한 수준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나타냅니다. 황소는 성막이나 성전 언어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5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증거의 성막이 사용되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를 통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증거의 장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저자가 성전을 증거의 장막,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한 증거의 장막으로 식별함으로써 출애굽 모티브를 더욱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애굽의 재앙에 맞춰 쏟아질 재앙은 황소로 밝혀졌습니다. 이사야 51장에서는 황소의 언어를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배경의 일부라면, 황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황소를 쏟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는 데 적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두 가지 다른 흥미로운 용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전을 가득 채우는 연기의 언어는 출애굽기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1절과 4절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은 요한계시록 4장의 왕좌에 대한 요한의 묘사에 영향을 준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높고 존귀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웃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제 4절로 가십시오. 2절과 3절의 날개 달린 생물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찾습니다. 아마도, 특히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의 이미지는 지금 이 땅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 하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아마도 심판이 그러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심판을 쏟아 붓는데 너무 두렵고 두려워서 아무도 견딜 수 없고 이 심판의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출애굽기의 비유에서 재앙이 있는 후에 일종의 점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주권이요, 바다 곁에 서서 승리하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연기가 성막을 채우는 출애굽과 같은 사건으로 성막이 열리는 것을 준비 하고, 우리는 16장에 이어지는 출애굽과 같은 일곱 가지 재앙을 접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그 일곱 가지 재앙과 그 모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8장과 9장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재앙이 출애굽을 모델로 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되는 일곱 가지 재앙은 모두 원래 출애굽 사건의 열 가지 재앙 중 하나 이상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숫자 7을 이 순서대로 일어날 일련의 정확한 일곱 재앙이 아니라 완전함, 완성을 나타내는 일곱 재앙으로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우리는 요한이 전염병의 정확한 본질과 그 모습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중요성, 확실성을 탐구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이 하나님께서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히, 그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이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압제적인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날을 훨씬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각각의

순서, 재앙, 나팔, 황소 등이 각각 주님의 날로 끝나거나 더 많은 자료를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해 바로 그 날로 데려간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인장, 나팔, 황소를 비교할 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출애굽의 재앙과 관련하여 나팔과 황소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동시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강도의 진행. 재앙은 더욱 심해지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으로 인해 그들은 땅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쳤고 나팔은 3분의 1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황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모든 사람과 온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펫과 함께, 혹은 미안하지만, 황소와 함께, 여러분은 이제 더 가까운 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마지막 날과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될 심판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저자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에서 다시 설명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기 전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끝났습니다.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출애굽기의 재앙과 출애굽의 재앙과의 연관성을 주목하라'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악하고 아픈 헌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 같이 변하고 바다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샘에 쏟으니, 그것이 피가 되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물을 맡은 천사가 가로되 주여 지금도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주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고 주께서 이같이 심판하시니이다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때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대답하되 그러하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었고, 이 재앙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원래의 출애굽에서 회개를 거부했던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왕국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하되 자기들이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구리처럼 생긴 악한 영들을 보았습니다. 개구리처럼 생긴 악령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참으로 매우 이상한 이미지입니다. 개구리는 세 마리뿐인데 어찌됐든 세 입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상징적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이적을 행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나아와 그들을 모으느니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성전에서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더라.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이와 같은 지진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진이 너무 심했어요.

큰 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잔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섬마다 도망갔고 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백 근쯤 되는 큰 우박덩이가 사람들에게 떨어지매 그 재앙이 너무 심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옥 재앙으로 여겼더라." 이것으로 황소 재앙의 순서가 끝났습니다. 출애굽기와와의 연관성 중 일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메모 이전에 언급할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여섯째 인과 일곱 인 사이에 막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즉시 주님의 날과 마지막 심판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첫 번째 황소인 염증의 황소는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염증의 재앙과 유사합니다. 황소 2번과 3번은 물을 피로 바꾸는 점에서 출애굽기 7장과 비슷합니다.

네 번째 황소에서는 태양이 사람들을 태웁니다. 출애굽기 9장. 교서 5장에는 이집트 왕국에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애굽 왕국에 어둠이 깔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왕국은 어두워졌습니다. 부분적인 어둠이 있었던 8장과는 달리 이제 사탄의 왕국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황소에는 출애굽기 8장의 개구리 재앙을 닮은 세 마리의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7번 황소, 천둥, 번개, 우박, 지진은 출애굽기 9장 23절과 유사합니다. 바로처럼 16장 11절에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출애굽의 재앙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염병이 어떤 모습일지,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말했듯이 요한은 우리를 출애굽기로 다시 끌어오므로써 재앙의 신학적 의미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장은 8장과 9장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악, 신이 없고 악한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영적일 수도 있고 육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는 것의 완전한 무익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으며, 인류가 이교적이고 무신적이며 우상 숭배하는 제국의 숭배와 충성에 굴복하고 따를 때 인류가 빠져드는 완전한 어둠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제 더 이상 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 곧 마지막 때의 심판 이전에 최후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이 삼중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제 끝은 매우 빨리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대접은 우리를 바로 끝으로 인도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며 우리를 분명히 끝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 즉 일곱 그릇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는 대신 몇 가지 독특한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장과 9장과 관련하여 그 중 일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릇에 담긴 이전염병 시퀀스의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 서너 가지 흥미로운 특징, 그리고 다섯 가지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세 번째 대접에 찬송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넷째 천사에게 다가가기 전에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요한이 환상에서 본 장면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찬송가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찬송에는 5절에 대한 응답으로 부른 찬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러한 재앙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제단까지 차임하고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포함되는 모든 재앙일 것입니다. 예,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제단이 올리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간증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두세 명의 증인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진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도 공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보좌가 소리쳐 이르되 그러하되다 주여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두세 증인이라는 주제, 즉 구약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기능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물이 피로 변하는 셋째 재앙과의 연관성에 유의하십시오.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특별히 하나님을 변호하고 심판의 공의와 공의, 곧 그가 쏟아 붓는 피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판결이 범죄에 적합하다는 원칙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악한 악의 제국, 짐승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그 보답으로 하나님은 이 대접의 형태로 그들에게 피를 주시는데, 이 피의 재앙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12절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12절과 이어서 여섯째 천사에게서 발견됩니다. 내 의견의 나머지 부분은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자는 유프라테스 강을 찾거나 언급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의 재앙이나 마지막 군대의 재앙과 관련하여 앞선 9장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John은 여기서도 같은 것을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언급은 파르티아인과 같은 공격자들이 나올 로마 자체의 북쪽 경계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요한이 이제 침략하는 군대를

기억하거나 생각나게 하기 위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북쪽에서 오는 군대에 대한 구약성서의 개념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말라버릴 문자적인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고 주장하는 요한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현대 군대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건너기 위해 강을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위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침략군에 대한 개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리스-로마 배경과 구약 성서의 기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프라테스 강에 대접을 쏟는다고 말할 때 독자들은 여기 침략군이 온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는 것은 동방의 왕들이다.

즉, 물이 말라서 동방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 군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침략군이라는 개념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땅의 왕들이 있고, 개구리 형태의 세 악령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구리와 동일시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출애굽의 개구리 재앙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마리의 개구리가 있고 저자는 이 개구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들을 귀신들린 존재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인 용의 입에서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악마의 공격 시나리오라는 것이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세 마리 개구리는 나라들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벌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15절에서 중단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16절에서 전투가 재개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땅의 왕들과 존재하는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온 세상의 왕들이냐? 그러면 유프라테 강을 건너는 동방의 왕들이 있고, 14절 끝에는 온 세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단순히 종말의 이미지일 뿐이고, 땅의 모든 왕들의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동방에서 침략하는 세력의 관념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종말의 전쟁, 즉 하나님 자신과 그의 백성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땅의 왕들과 동방의 왕들 사이의 어떤 전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전면적인 공격에서 땅의 왕들과 동방의 왕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 저자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시간의 전투입니다. 이제 그것을 언급하기 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겟돈이라는 용어의 어려움은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이 그의 논평에서 제안한 것처럼 일부는 이를 두 가지 가능한 설명 범주로 나누어 이를 식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딘가를 암시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종종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시도했는데, 문제는 아마겟돈이 두 단어, 즉 히브리어 단어인 Har(산)와 Megiddo(평면, 광활한 곳, 또는 여러분이 바라는 평면)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과 열왕기상 18장,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5장과 같은 구약전서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스가랴 12장에서는 이 마지막 전투에 대해 언급합니다.

므깃도의 차원인 므깃도는 구약성서에서 전쟁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므깃도 산인 아마겟돈을 문자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문제는 바로 므깃도 평면에 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를 지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리적인 설명입니다. 오스본이 강조하는 두 번째 설명은 어원적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겟돈을 실제로는 집회 산으로 보고 므깃도와 관련된 일부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므깃도 산인 아마겟돈이 산 이미지를 사용하여 요한이 직접 건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므깃도를 잘 알려진 전투 장소로 묘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투쟁이나 전투, 전쟁을 언급하기 위해 워털루나 베트남을 사용하는 것과 약간 비슷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베트남 등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장소에서의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알려진 전투를 또 다른 갈등의 상징이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요한은 구약의 유명한 전투 장소인 므깃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므깃도 산이라는 용어를 마지막 전쟁의 상징인 장소로 추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므깃도 산에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투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본문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서술될 마지막 전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 탄 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이 있습니다.

20장 마지막에는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 세계 모든 민족을 미혹하고 전쟁을 위해 함께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진을 에워쌌으나 하나님은 친히 하늘에서 나오는 불로 그들을 멸하시느니라. 따라서 여러 전투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19장에는 인자가 백마를 타고 나와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탄이 군대를 모아 나가서 성도들과 싸워 멸망당하는 또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전투가 아마도 동일한 전투를 언급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세 번의 개별 전투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똑같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흥미롭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전쟁을 위해 모이는 군대의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장과 19장에서는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아곡과 마곡에서 나오는 동일한 이미지를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9장과 20장에서 실제 전투에 접근할 때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전투, 이 세 전투 모두가 동일한 전투를 지칭하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투 준비 과정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전투는 없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19장과 20장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 전투에서 무엇이 묘사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문자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 또는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15절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종류의 중단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16장이 마지막 때의 일련의 사건을 결정하거나 마지막 때를 도표로 나타내거나 단순히 다음과 같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모든 것의 중간에,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장과 3장에서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일이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할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요한은 3장과 4장을 그려 독자들에게 경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라”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John은 독자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요청은 충실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는 말을 주목하라. 그것은 바로 2장과 3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데 교회에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리라 경고하셨습니다. 3장 3절은 그랬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데는 깨어 있고 경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흰옷을 입으라고 했던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따라서 2장과 3장의 언어를 연상시키는 이 언어는 단순히 요한이 말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중요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신실한 증언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이 마치 도적처럼 오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깨어 충실하고 깨어서 심판 날에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은 16장이 2장과 3장의 독자들에게 신실함을 유지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이교 로마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삽입입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다음 부분은 바벨론과 그 멸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17장과 18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16장 끝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데려오는 일곱째 대접과 마지막 대접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마지막 날까지. 제거되는 섬의 언어 등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큰 바벨론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큰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잔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7장과 18장은 그 인, 죄송합니다, 그 대접, 큰 바벨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17장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추가 설명과 그 진정한 성격, 그리고 그 최종 심판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내용을 더욱 자세히 전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21과, 요한계시록 14-16장, 첫 곡식, 포도 심판,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